

자동차도 구독시대... 매달 내 맘대로 골라탄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 구매부터 렌트, 리스, 공유를 넘어 이제 자동차도 구독하는 시대가 됐다.

최근 자동차업계는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매달 구독료를 받고 기간 내 자신이 원하는 차를 바꿔가며 탈 수 있도록 한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점점 과정을 통해 관리되는 차량을 제공 받아 정비나 소모품, 보험료 등 관리비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다양한 차량을 골라 탈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현대자동차 고객 혜택 강화한 '현대 셀렉션' 선보여=현대차는 구독형 프로그램 '현대 셀렉션'에 다양한 모델과 연계한 혜택을 새롭게 추가하고 48시간 단기 이용 상품을 출시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현대 셀렉션 월 구독 상품(레귤러 팩)을 이용하는 고객은 매달 전통 킷보드, 택시 등 다양한 모빌리티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전통 킷보드 서비스 '킷고잉' 1000원 할인권 20매 ▲주차 플랫폼 '아이파크' 3000원 할인권 5매 ▲'T택시' 5000원 할인권 4매 ▲음악 플랫폼 '플로(FLO)' 월정액 이용권(8000원) 1매 등 총 4가지로 구성된다. 구독 상품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현대차는 현대 셀렉션을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계해 고객에게 색다른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고 모빌리티 구독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 셀렉션의 요금제는 ▲베이직 (59만원) ▲스탠다드 (75만원) ▲프리미엄 (99만원) 등 3가지로 운영된다.

차 업계, 렌트·리스·공유 넘어 구독 서비스 선보여
현대차, 베이직·스탠다드·프리미엄 3가지 운영
기아차, 기아플렉스는 교환형·단독형 상품 서비스

'베이직 요금제'는 2차종(아반떼, 베뉴) 중 선택 가능하며, 월 1개 차종만 이용할 수 있다. '스탠다드 요금제'는 4차종(쏘나타, 투싼, 아반떼, 베뉴) 중 월 1회 교체가 가능해 한달 간 총 2가지 차종을 이용할 수 있으며, 1인 사용자 추가가 가능하다.

'프리미엄 요금제'는 싼타페 페이스리프트 경험을 제공하고 모빌리티 구독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 셀렉션의 요금제는 ▲베이직 (59만원) ▲스탠다드 (75만원) ▲프리미엄 (99만원) 등 3가지로 운영된다.

여기에 현대차는 48시간(2일) 동안 현대차의 특별한 차종들을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이용 상품 '스페셜 팩'을 새롭게 추가했다.

스페셜 팩은 ▲팰리세이드, 그랜드 스타렉스 어반(9인승) 중 1개 차종을 선택할 수 있는 '트래블(19만9000원)'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을 대표하는 모델 벨로스터 N을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14만9000원)'로 구성된다. 현대차는 고성능차에 대한 고객 요구에 맞춰 향후 스페셜 팩에 N

라인 차종을 지속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기아자동차 '기아플렉스' 연장 운영=기아차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 '기아플렉스(KIAFLEX)'를 연장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아플렉스'는 차량 임대에 대한 보증금이나, 차량 보유에 따른 각종 세금 부담 없이 월 구독료를 납부하고 차량을 운영하는 기아차 최초 구독형 서비스로 두 가지 상품으로 구성된다.

먼저, '교환형' 상품은 월 단위 요금 129만원을 지불하고 ▲K9 3.3 터보, ▲스팅어 3.3 터보, ▲모하비 3.0 차량 중 한 차종을 선택해 이용하면서 매월 1회씩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어 '단독형' 상품은 ▲K9 3.8, ▲모하비 3.0, ▲니로·쏘울 전기차 ▲K7 2.5 모델

을 각각 월 단위 요금 159만원, 109만원, 87만원, 88만원 지불하고 해당 선택 차량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상품이다. 전기차의 경우 무제한으로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도 운영된다.

특히 '기아플렉스'의 두 상품 모두 구독 차량과는 별도로 매월 1회씩 최대 72시간 동안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기아플렉스'는 만 26세 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하고 본인 명의의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기아차는 오는 2021년 전기자동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를 출시하고, '기아플렉스' 구독 차량에도 추가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차, 오토큐 '더 드라이빙 앱 키' 출시

스마트폰 앱으로

문 잠금 및 해제·트렁크 제어

기아자동차가 디지털 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들을 위해 서비스 협력사 오토큐와 함께 '더 드라이빙 앱 키' (The Driving APP KEY·사진)를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더 드라이빙 앱 키'는 기존 자동차 스마트키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으로 문 잠금 및 해제, 트렁크 열림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오토큐의 브랜드 상품이다.

현대·기아차 사내스타트업으로 시작해 2019년 분사한 '툄잇'(Tuneit)'이 개발했다.

기아차는 디지털 키를 차량 옵션으로 선택할 수 없었던 고객들도 키가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이용하고 가족, 지인 등과 손쉽게 차량을 공유할 수 있도록 '더 드라이빙 앱 키'를 마련했다.

대상 차종은 셀토스, 쏘렌토, 스포티지, 카니발, 모하비, K5, K7, 니로, 레이 등 총 97대.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자동차 스마트키를 갖고 오토큐에 방문하면 된다. 서울·경기권 오토큐부대 판매를 시작해 추후 판매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오토큐는 '더 드라이빙 앱 키' 출시를 기념해 오는 8월 31일까지 30% 할인된 가격인 19만8000원에 상품을 판매한다. 구매 가능한 오토큐 지점은 '기아 빅'(KIA VIK)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아차는 차량 관리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 또는 스타트업과의 상



생을 위해 오는 7월 5일까지 오토큐의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용 상품인 '큐솔루션'(Q Solution) 신제품 발굴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전을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차량 관리 전 영역에서 신제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당선 상품에 대해서는 오토큐 공식 브랜드 상품 지정 및 판매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공모전 참가를 원하는 회사 또는 스타트업은 기아 레드멤버스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토큐와 함께 혁신적인 기술과 우수한 상품성을 가진 제품을 지속 출시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제네시스, 2021년형 G90 모델 공개 'G90 스페셜 에디션' 50대 한정 판매

제네시스는 상품성을 강화한 2021년형 G90와 G90 스페셜 에디션 '스타더스트'(Stardust)를 29일 공개했다.

2021년형 G90는 제네시스 어댑티브 컨트롤 서스펜션, 지능형 전조등을 전 트립 기본 적용하고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19인치 신규 휠 등을 채택해 주행 편의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제네시스는 어댑티브 컨트롤 서스펜션은 주행상황별로 진동을 최소화하고, 앞바퀴와 뒷바퀴의 감쇠력을 적절히 배분해 승차감뿐만 아니라 조종 안정성까지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능형 전조등은 상황등을 켜고 주행 시 선행 차량 및 대향 차량이 나타나면 전방 카메라를 통해 차량을 인지하고 차량이 있는 영역만 선별적으로 상황등을 소등해 G90 운전자의 전방 시인성을 확보하면서도 상대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해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는 주차·출자를 위한 저속 후진 중 보행자나 장애물과의 충돌이 감지됐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필요시 브레이크를 자동 제어해 안

전 운전에도 도움을 준다. 또 '스타더스트'는 2021년형 G90 5.0 프레스티지 트림을 기본으로 제작되며 ▲제네시스 강남 ▲제네시스 스튜디오 하남 ▲부산오토스퀘어에 전시될 예정이다. 7월2일부터 50대 한정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2021년형 G90의 가격은 3.8 모델 ▲럭셔리 7903만원 ▲프리미엄 럭셔리 9375만원 ▲프레스티지 1억1191만원으로, 3.3 터보 모델은 ▲럭셔리 8197만원 ▲프리미엄 럭셔리 9670만원 ▲프레스티지 1억1486만원이다. 5.0 모델은 ▲프레스티지 1억1977만원 ▲리무진 1억5609만원, 스타더스트 1억3253만원이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제네시스 전용 디자인 패턴을 도입하고, 내장 고급화 등을 통해 지난 2018년 신차 수준의 디자인 진화를 보여준 G90는 국내 초대형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모델"이라며 "스타더스트 출시를 통해 제네시스 브랜드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한단계 격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중형 전기버스 '카운티 일렉트릭' 출시

현대차, 국산 최초

현대자동차는 경제성과 친환경성, 안전성, 편의성 등을 모두 갖춘 국산 최초 중형 전기 버스 '카운티 일렉트릭'(County Electric)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카운티 일렉트릭은 주로 마을버스나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활용되는 15-33인승 중형 버스에 고효율·고출력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탑재한 중형 전기버스다.

카운티 일렉트릭은 기존 디젤 모델과 비교해 뒷바퀴 중심부터 차체 끝까지 거리인 리어 오버행을 600mm 늘려 7710mm의 전장을 갖춘 초장축 모델로 출시됐으며, 용도에 따라 마을버스용과 어린이버스용 두 가지로 운영된다.

기존 장축 모델 대비 늘어난 전장만큼 차량 하부에 추가적으로 리튬·이온 폴리머 고정형 배터리를 탑재했다. 총 128kWh 용량의 배터리를 적용, 1회 완충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 250km(15인승, 인준 기준)를 확보했다.

최대 장점은 상대적으로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128kWh 배터리 완충을 위한 전기 급속충전 비용은 약 2만

8000원이다. 디젤 모델을 가득 주유하는 비용(약 10만9000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국내 전기 승용차 표준인 'DC콤보 타입1'의 150kW급 급속 방식을 기본으로 적용해 충전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였고 128kWh 완충에 약 72분이 소요된다. 가정용 220V 전원 단자나 완속 충전기를 활용하는 완속 충전 방식은 어린이버스에 선택 사항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완충하는데 약 17시간이 소요된다.

현대차는 전기 버스에 특화된 점단 안전 시스템을 적용한 것은 물론, 승객들이 승하차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항을 카운티 일렉트릭에 기본 적용해 운전자와 승객이 모두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배터리 안전과 관련해 ▲배터리 이상 감지될 경우 전류를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충전 시 배터리 전압을 확인해 이상 전압이 감지되면 이를 차단하는 과충전 방지 장치 ▲정비 시 전기 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하는 세이프티 플러그 등을 적용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